

장성군에 청년 거점 생긴다... '청년센터' 건립 추진

읍시가지에 부지 확보 '접근성' 장점...2025년 완공 목표

청년소통공간·예비창업공간·미디어 스튜디오 등 구성

장성군이 청년 활동의 거점시설인 '청년센터' 건립을 새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청년센터'는 청년들이 모여 소통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자기개발, 여가선용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공간이다. 전남지역 22개 시군 가운데 장성에만 청년

센터가 없어, 그간 건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군은 2022년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청년센터 건립 추진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그 결과, 지난해 행정안전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며 총사업비 25억

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청년센터 건립에 있어 가장 우선적인 고려사항은 '위치'였다. 군은 접근성이 좋은 장성을 군민회관 인근에 부지(장성을 영천리 1486-4, 787-9)를 확보해 청년들이 언제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부지면적 1690㎡, 건축면적 600㎡에 지상 2층 건물로 지을 계획이다. 청년소통공간, 예비창업공간, 다목적홀, 미디어 스튜디오 등을 갖춘다.

건립준비 상황은 순조롭다. 지난해 부지를 매입한 데 이어 공유재산 심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를 일찌감치 완료했다. 올해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등을 거쳐 10월경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인구정책이나 지자체 활성화 사업의 핵심은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 강조하며 "청년센터 건립을 필두로 사람이 모여드는 '살고 싶은 장성'을 만드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장성=김수권기자

화순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접수 하세요

1월 31일까지 신청...10% 감면 혜택

화순군이 1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 납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매년 2회 3월과 9월 경우 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일시 납부 경우 납부 금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신청 및 납부 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화순군청 환경과로 전화(061-379-3585) 또는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한 경우 차량 소유자는 매년 1월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되며 연납 고지서 수령 후 미납 시에는 자동 해지되어 감면 혜택 없이 정기분 고지서(3월, 9월)가 발송된다. 납부는 전국 각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전용(가상) 계좌 이체, 인터넷(위택스·인터넷 지로), 신용카드로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체납을 방지하는 동시에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군민이 신청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담양군, 화요 야간 민원실 운영 "오후 8시까지"

담양군이 오는 23일부터 매주 화요일에 야간 민원실을 운영한다. 야간 민원실은 평일 운영시간에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을 위해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제공하는 민원 서비스다. 군청 민원과에서 운영하며, 등·초본, 인감 등 민원서류 발급과 여권 신청과 교부 처리가 가능하다.

꾸준히 증가하는 여권 발급 수요에 대응하고, 무인 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지 않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맞벌이 부부와 직장인 등이 겪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노 군수는 "바쁜 일과로 근무시간 내 군청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에게 세심한 민원 행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곡성군, 라오스 일손으로 농촌 인력난 해소 기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첫 도입 후 선제적 대응...2월 중순 30명 배치

곡성군은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에 선정 후, 본격적인 영농철이 다가오기 이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기 위해 곡성농협과 함께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각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고 농가와 인력을 연결해주는 사업으로, 농가는 하루 단위로 농협에 이용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곡성군과 곡성농협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농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그동안 계절근로자를 도입한 여러 지자체를 벤치마킹해 왔고 관계기관, 농가와 수 차례 회의와 협의를 거쳐 촘촘하게 본 사업을 준비해 왔다. 지난해 MOU를 맺은 라오스 므앙타파발군에서 온 계절근로자 30명은 고달면의 안계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생활하게 되며, 군은 오는 2월 중순 농작업 안전교육 등을 실시한 후 영농철 필요 농가에 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빠른 적응을 위해 지역의 다양한 농촌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장기간 고용에 따른 숙박과 식혜결의 어려움으로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실적이 저조했지만, 올해부터 농협에서 공동숙식을 제공해 농가의 부담을 해소하고 적기에 인력을 공급할 수 있어 지역 농가의 호응이 기대된다. 또한, 중개수수료가 없고 단기 고용계약이 가능하며, 인건비 절감으로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군에서는 올해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측하지 못한 문제점은 현실에 맞게 보완해 실질적으로 지역 농가에 도움이 되는 '곡성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상철 군수는 "곡성농협과 함께 처음으로 시작하는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으로 영농기 철 지역 농가에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공급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라오스 계절근로자들이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전한 근로환경 속에서 적절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의 복지도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곡성=양혜영기자



나주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영농 신기술 보급

나주시가 성공적인 영농계획 수립과 한 해 결실을 위한 '2024년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오는 15일부터 실시한다. 9일 나주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농업인 600명을 대상으로 오는 2월 20일까지 총 15회차로 읍·면·동을 순회하며 진행된다. 새롭게 달라지는 시정 및 농정시책 안내와 새해 영농계획 수립에 필요한 작목별 재배기술 보급에 중점을 둔다.

풍부한 현장경험, 영농 지식을 갖춘 내·외부 농업분야 교수, 전문가, 직원을 강사로 초빙해 지역 특화품목인 배와 수도작, 고추 등 작목 재배에 필요한 핵심 영농기술을 전수할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는 교육 기간 중 다루지 못한 품목에 대한 연중 상설교육과 더불어 미래 농정분야인 디지털·스마트농업 전문경영인 양성 과정을 신설, 운영할 계획이다. 나주=기동채재본부

구례군, 군민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 위한 정보화 교육 추진

1월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교육

구례군은 1월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종합사회복지관 2층 전산교육장에서 '군민 정보화 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화 교육은 컴퓨터 활용이 없는 구례군에서 군민의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군은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업무 효율성과 생활 편의성을 높여주는 한글과 엑셀 등의 기초 과정을 교육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지역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해 교육 과정을 세분화했으며, 수준별로 ▲인터넷 정보검색과 보안 ▲한글 문서 작성 ▲엑셀 함수 활용 등 총 3개 과정을 구성했다. 교육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일간, 각 2시간씩 진행된다. 김순호 군수는 "빠른 속도로 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소외되는 군민이 없도록 다양한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청 누리집 정보화 교육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 신청은 교육 기간에 군청 총무과 또는 읍·면 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구례=박진호기자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 SPS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엔텍

포스코건설
포스코O&M

포스코케미칼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에너지
포스코티미날

포스코ICT
포스코A&C

포스코광관